

“타이거즈 대항마 없다...김도영 홈런왕 도전하길”



어바인 캠프 찾은 이순철 해설위원
공수 밸런스 좋고 빈틈 안보여
치열한 내부 경쟁이 동기 부여
오버페이스·자만은 경계해야

“극강이 아니라 특강.” 이순철(사진) SBS 스포츠 해설위원이 2025시즌 KIA 타이거즈의 전력을 ‘특강’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최근 LA 어바인을 찾아 KIA의 스프링캠프 현장을 살펴봤다. 지난 시즌에도 KIA를 ‘우승후보’로 꼽았던 그는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4승 1패’의 우승을 예견하기도 했다. “캠프를 보나마나 KIA가 특강이다. 대항마가 없다”고 말한 이 위원은 “전력이 유지됐고, 조상우도 왔고, 선발이 넘쳐난다. 불펜 튼튼하고, 마무리 잘 돼 있다. 야수 뎀스 두껍고, 홈집을 데가 없다”며 KIA를 ‘특강’으로 꼽은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약점이 있는 상대들과 달리 공수의 밸런스가 좋은 KIA의 빈틈이 보이지 않는 데다 경쟁이

리는 효과까지 더해져 적수가 없다는 평가다. 이 위원은 “작년 캠프에서도 KIA를 우승 후보로 꼽았었다. 최원준이 들어오고, 박찬호도 3할을 치고 빈틈이 없었다”며 “올 시즌에는 경쟁도 더 치열해졌다. KIA 선수들 내부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것만 해도 동기 부여가 된다”고 언급했다. 홈집을 데 없는 전력을 갖춘 KIA의 적은 오히려 내부에 있다고 말한다. 이 위원은 “KIA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면서도 “전력이 너무 좋으니 자만에 빠질 수 있다.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 부상과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우승 후유증이 생기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팀도 부상이 있으면 안 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버페이스를 하다 부상이 올 수 있다”고 부상과 초심을 연배 키워드로 꼽았다. 그만큼 이범호 감독의 ‘관리’ 능력도 올 시즌 성적을 좌우할 주요 전력으로 꼽았다. 이 위원은 “KIA는 전혀 약점이 없다. 뎀스가 좋으니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선수를 경험도 많고, 스스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며 “이범호 감독은 관리만 잘하면 된다. 선수들 관리 잘하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된다. 올해는 더 좋아졌다. 선

수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TV로 야구를 보는 KIA 팬들은 방에 누워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이다”고 웃었다. KIA의 연패 여부와 함께 올 시즌 관련 포인트 중 하나는 ‘MVP’ 김도영의 활약이다. 김도영은 지난 시즌 0.347의 타율과 함께 38홈런-40도루를 기록하면서 리그를 평정했다. 올 시즌 기대가 더 커진 만큼 김도영의 어깨도 무거워졌고, 상대의 집요한 견제도 예상된다. 쉽지 않은 시즌이 예상되지만 이 위원은 오히려 “역사를 쓸 수 있는 해”라며 김도영의 질주를 예상했다. 그는 “김도영이 작년만큼 할 것이다. 타격은 기록이 있어서 파도와 같다고 하지만 작년에 보여준 스타일을 보면 요행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만드는 타격이라 심한 부진은 없을 것이다. 부상만 없으면 작년 같은 시즌을 보낼 것이다”며 “올해가 역사를 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 발전된 시즌을 예상한 그는 도루왕 출신의 야구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위원은 김도영이 ‘홈런’에 초점을 맞춰 올 시즌을 보내면 역사의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위원은 “김도영이 ‘30-30’을 목표로 이야기하는 데 나는 반대한다. 도루왕 해봤는데 별로 안 알아준다(웃음). 나는 홈런왕 자질이 없어서 도루왕에 만족했는데, 김도영은 홈런왕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다. 도루를 즐기고 홈런왕에 도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홈런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루를 즐기는 게 오히려 상대를 괴롭히는 패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위원은 “도루는 나도 해봤지만 체력 소모가 많고, 안 다치려고 노력하겠지만 부상 우려가 있다. 도루를 많이 하다 보면 홈런을 더 칠 수 있는 게 줄어들 수 있다. 김도영의 새로운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 홈런왕에 도전했으면 한다”며 “홈런을 치겠다고 해서 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타격하는 것을 봤을 때 홈런왕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도루를 안 하면 자기 패를 감추고 있으니 상대를 더 괴롭힐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빠른 선수라는 자신의 스타일을 생각하겠지만 체력 소모 줄이고, 부상 안 당하면서 홈런왕을 노릴 수 있다”고 김도영의 2025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글·사진 어바인=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 태국과 무승부...아챔리그 5위 확정

산둥 타이산, 울산전 돌연 포기

광주FC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를 4승 2무 2패로 마무리했다. 이정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FC는 지난 18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ACLE 리그 스테이지 8차전 경기에서 부리람 유니타이트(태국)와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전 2골을 내줬던 광주는 후반 연달아 터진 오후성의 골을 앞세워 승점 1점을 더했다. 이날 경기를 통해 광주는 4승 2무 2패(승점 14-골 득실차+4)의 전적과 함께 동아시아 5위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산둥 타이산과의 원정경기가 끝난 뒤 16강을 확정했던 광주는 4위 조호르 다를 탁 짐 FC와 8강 티켓을 놓고 다투게 된다. 전반전은 부리람이 주도했다. 광주는 경기 시작 13분 만에 상대 트라이커 길레르미 비솔리에 선제골을 허용했다. 전반 35분에는 비솔리가 도움도 올렸다. 비솔리의 패스를 받은 마르틴 보야케가 오른쪽 슈팅으로 광주 골망을 흔들면서 0-2가 됐다.

이정호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돌아온 에이스 헤이스와 캡틴 이민기를 투입해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변화의 움직임 속 오후성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후반 19분 오후성이 박인혁에게 넘겨받은 공을 오른발로 때리면서 부리람의 골대를 갈랐다. 6분 뒤 다시 한번 오후성이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가 걸어낸 공을 잡은 오후성이 오른쪽 슈팅을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두 팀은 팽팽한 공방전 끝에 추가 골을 넣지 못하면서 승점 1점씩 나눠 가졌다. 한편 19일 오후 7시 울산문수구장에서 예정됐던 산둥 타이산(중국)과 울산HD의 경기가 돌연 취소됐다. 산둥이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ACLE 경기를 포기했다. AFC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규정 5조 2항에 따라 산둥이 울산전 출전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기권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진행을 거부하거나 경기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사전에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클럽은 해당 조항에 따라 기권으로 간주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오후성이 지난 1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리람 유니타이트(태국)와의 ACLE 리그 스테이지 8차전에서 동점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정후 ‘어깨 펴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외야수 이정후가 18일(현지시간) 자이언츠 스프링캠프가 열리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 선수단 단체 훈련서 타격·수비·주루 등 훈련 소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연습 두렵지 않았다”...시즌 복귀 이상무

지난 18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선수단 전원을 소집하면서, 복귀를 앞둔 이정후(26)의 시계도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정후는 선수단 전체 훈련 이틀째인 19일 타격과 수비, 주루 등 다양한 훈련을 소화했다. 실제 투수의 공을 공략하는 라이브 배팅 훈련은 팀 여건 때문에 단 한 타석으로 마쳐야 했지만, 수비와 주루 훈련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수비 훈련에서는 동료 외야수와 함께 외야에서 구단 수비 인스트럭터의 이론 교육을 받았다. 특히 이정후가 보는 앞에서 코치가 펜스에 몸을 부딪치며 시범을 보인 장면은 의미가 있었다. 이정후는 지난해 5월 13일 신시내티전에서 수

비 도중 펜스와 충돌해 왼쪽 어깨를 다쳤고, 이 때문에 수술과 함께 시즌을 마쳐야 했다. 선수라면 어떻게 펜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구단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훈련 일정을 잡은 것이다. 훈련이 끝나고 만난 이정후는 “이 시기에는 외야 인스트럭터가 와서 수비 이야기를 한다. 펜스 플레이와 동료 외야수와 소통, 공이 햇볕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야기 나눌지 등이다. 작년에 도 소화한 훈련이지만, 올해 다시 이야기를 들으며 되새겼다”고 설명했다. 슬라이딩 훈련 역시 의미가 있었다. 이정후는 코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머리부터 먼저 들어가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과 한쪽 다리

를 접어 다리부터 들어가는 ‘벤트 레그 슬라이딩’을 연습했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은 앞드리면서 양쪽 어깨를 앞으로 쭉 뻗어야 한다. 지난해 어깨를 다친 뒤 수술받은 이정후에게는 부담스러운 훈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정후는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부위를 수술했던) 2018년이 더 무서웠다. 당시 한화 이글스와 존플레이오프에서 다쳤는데, 그때가 힘들었지, 지금은 훨씬 낫다”고 했다.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이정후는 새 시즌을 대비해 타격 자세도 미세하게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후는 “작년에 안 좋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코치에게 말했고, 코치들과 함께 조금씩 교체가 는 중이다. 그래서 실내 타격 연습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서 “스스로 (타격할 때) 실수하는 동작을 줄이고 싶어서 계속 연습 중”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높이뛰기 우상혁 벌써 ‘시즌 2승’

세계육상연맹 슬로바키아 대회

‘스마일 점프’ 우상혁(28·용인시청)이 올 시즌 두 번째로 치른 대회에서도 우승했다. <사진> 우상혁은 19일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연맹 인도어 투어 실버 반스카비스트리차 실내높이뛰기 대회에서 2m28을 넘어 정상에 올랐다. 13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우상혁은 2m16, 2m21, 2m25, 2m28을 모두 1차 시기에 넘겼다. 루이스 사야스(쿠바)가 2m28의 벽에 막히면서, 우상혁은 단 네 번의 점프로 우승을 확정했다. 2위 사야스의 기록은 2m25였다. 2022년(2m35)과 2024년(2m32)에 이어 통산 세 번째로 반스카비스트리차 대회 우승을 확정판

다. 한국시간으로 새벽에 경기가 열렸는데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우상혁은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4위(2m35)에 오르며 세계 최정상급 점프로 부상했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7위(2m27)에 그친 뒤 눈물을 쏟았던 우상혁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다시 힘을 냈다. 지난해 말부터 태국, 한국, 체코에서 훈련한 우상혁은 두 번의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며 이번 시즌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열리지 않는 올해, 우상혁을 자극하는 대회는 세계실내선수권과 실외 세계선수권이다. 3월 21~23일 중국 난징에서 세계실내선수권, 9월 13~21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실외 세계선수권이 벌어진다. 우상혁은 올해 3월 난징에서 세계실내선수권 정상 탈환, 9월 도쿄에서는 한국 육상 사상 첫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우상혁(가운데)이 19일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연맹 인도어 투어 실버 반스카비스트리차 실내높이뛰기 대회에서 2m28을 넘어 우승한 뒤,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대한육상연맹 제공>